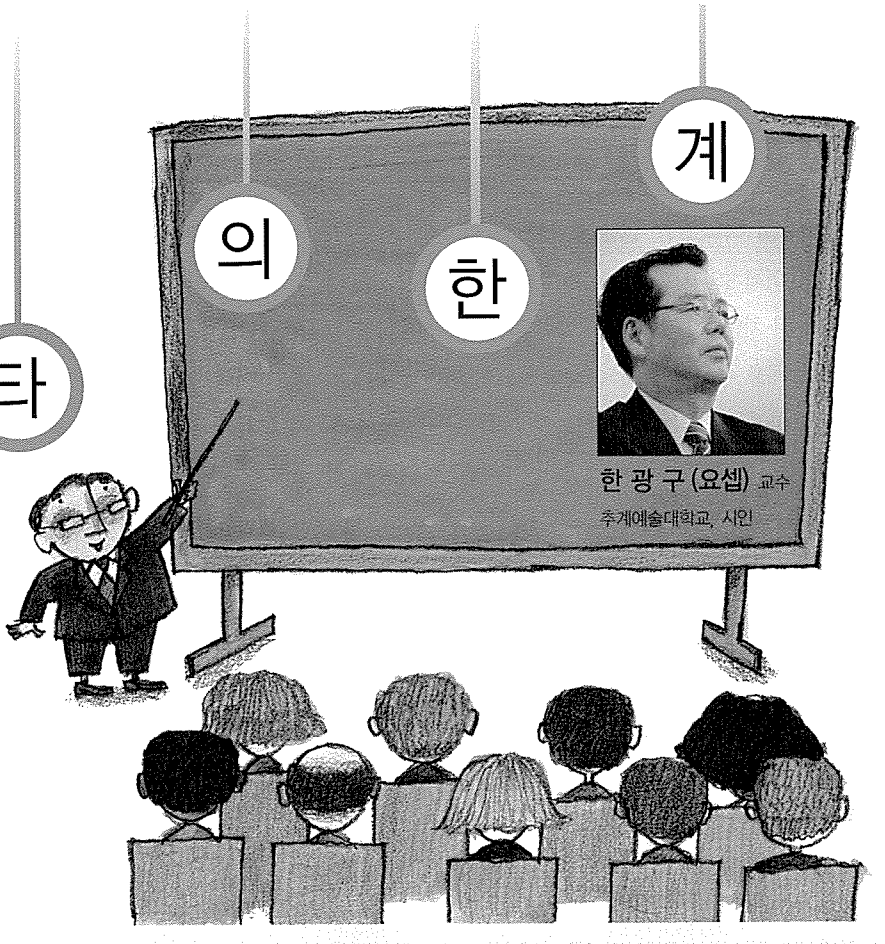
낙타의 한계



한 광 구 (요셉) 교수
추계예술대학교, 시인

얼마 전 황우석 교수가 정진석 대주교를 찾아가 만났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정부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는 우리의 스타 과학자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온 국민이 갈채를 보내는 가운데 가톨릭교회의 반대성명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그의 연구가 인간의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크게 공헌하리라는 확신에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교회 쪽에서는 이런 연구가 인간 생명을 창조한 신의 섭리를 거역하여 자칫 인간생명을 복제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는 염려 때문에 그 연구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였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 만남이 끝난 다음 스타 과학자 황 교수는 많은 꾸지람을 들으러 갔는데 자상하고도 친절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황우석 교수가 과연 어떤 가르침을 얼마만큼 받았고, 또 그 가르침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였을까 생각해보면서 잠시 종교와 과학의 만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학이 인간의 지식이 도달하는 최후의 진리라면 종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를 새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기의 인간의 삶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과학은 끊임없이 종교에 도전하여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마도 이천년 전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각종 기적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이루려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 하시고 걸으신 것처럼 사람이 물 위를 자유롭게 걸을지도 모르고, 쉽게 하늘을 날게 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장님이나 문둥이를 고쳐주신 것처럼 과학은 그 일을 열심히 할 것이며,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과학도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에게 보여 주시었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과학이 그대로 추구하며 인간 삶을 바꾸려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시간을 병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면서 치료방법을 생각하고 처방을 강구하는 의사들의 삶은 바로 사막을 걷는 낙타의 삶이겠지요.

하기야 이런 노력들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과학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우주의 원리를 계속 새롭게 발견하고 있고, 이런 연구가 시간의 개념이 아날로그가 아닌 전자파의 흐름으로 바뀌면서 공간의 개념도 사이버란 가상공간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컴퓨터 시대에 살면서 그 공간 안에 삶의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이를 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의 덕분으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생활은 편해졌고, 난치병은 치료되고, 생명은 연장되었고, 세계는 급속히 가까워져서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 사람들은 환상을 현실로 착각하기도 하고 컴퓨터에 의지해 많은 정보를 얻고 적당히 그것을 편집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예술은 영상에 의지하여 점점 감성 중심으로 되어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고, 생각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서 안락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은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지극히 살기 좋다는 사회에서도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나는 '낙타와 바늘귀'란 성경말씀을 새삼 떠올립니다.

사실 그 말씀에서 낙타로 비유되는 그 청년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하느님의 계율을 지키며 살아왔고 열심히 일하여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영원한 생명을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셨지요.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어려운 일이라 하시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타는 햇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사막을, 또 밤이면 추워지는 황량한 벌판을 오직 계율을 되새김질 하며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사람의 삶에서도 이런 노력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은 하느님께 맡겨야 하는 세계입니다.

나는 의사님들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직업치고는 의사란 직업은 좋은 직업이 아니지요. 늘 병든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만 하지요. 하루의 일과시간을 병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면서 치료방법을 생각하고 처방을 강구하는 의사들의 삶은 바로 사막을 걷는 낙타의 삶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존경과 아울러 적당한 부를 제공하는 거지요. 의술(醫術)이 인술(仁術)이 되는 이유는 이런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성실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낙타의 한계는 여기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바늘귀를 통과하고 못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니까요.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또 환자와 씨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노고를 새삼 생각하면서 우리의 스타 과학자 황우석 교수의 연구도 이런 낙타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